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장 승 욱\*\*

- I. 들어가는 말
- II. 기존연구의 동향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술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심경의 변화(mind-altering)를 가져오는 물질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양한 문화 속에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sup>1)</sup>. 알코올이 소유한 상징적인 중요성은 Gusfield<sup>2)</sup>의 “놀이로의 통로: 미국사회에서의 음주의식”이라는 논문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알코올은 상징적 물질로 일(work)에서 놀이(play)로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므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근무시간에 술로 목을 축이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회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첫째 행위는 일상성으로부터 집단적인 이탈을 표시하는 음주행위로, 일에서 벗어나 특별한 행사나 의례적인 축제에서의 음주와 같이 문화적으로 규제된 전이의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농경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음주는 일상의 흐름으로부터의 개인적인 휴식이며, 직장과 가족

\* 본 연구는 1995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짐.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전임강사

- 1) Mandelbaum, D., “Alcohol and Culture”, in M. Marshall(ed.), *Beliefs, Behaviors, and Alcoholic Beverages: A Cross-cultural Surv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9, pp. 14-35.
- 2) Gusfield, J., “Passage to Play: Rituals of Drinking Time in American Society,” in M. Douglas(ed.) *Constructive Drinking*,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73-90.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며, 현대사회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알코올은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한 면은 사회적 친화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알코올은 연회, 결혼식, 축하연과 같은 축제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다. 또한 알코올 음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정을 다짐하고, 통과 의례 또는 종교적 절차의 일부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sup>3)</sup>. 그러나 알코올은 과도하게 사용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많다. 알코올 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 태아의 알코올중후군, 술로 인한 폭력과 사고사, 살인,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알코올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물질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 5위의 술 소비국으로 부상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음주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마다 3월이면 신문에 보도되는 대학신입생의 환영회 사고는 우리가 범상하게 지나치는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다. 우리나라에는 ‘남자의 호연지기가 주량에 비례한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으며,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이다. 특히 성인 남성들은 결혼식, 기념행사,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축하 모임에서는 보통 과음을 하게 되며, 술에 취하는 기회가 빈번하다. 최근에 조사된 서울지역의 한 여자대학의 연구에서는<sup>4)</sup> 657명의 여대생중 음주자가 93.2%로, 비음주자는 6.8%에 불과하며, 음주빈도도 1개월에 수회가 47.7%, 일주일에 1-2회도 15%나 되어 음주문화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알코올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염려가 고조되는 반면에 그들의 음주행위와 그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연구가 되리라 믿는다.

이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통해 한국사회 청년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음주형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한다. 둘째, 음주의 총량을 통한 대학생들의 음주규범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정상음주와 문제성음주를 규정하는 판단기준을 자신의 규범(응답자의 견해)과 문화적 규범(응답자

3) 유태종, “한국 전통문화에서 본 음주에 대한 태도 및 습관”, 『정신건강연구』, 4,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1986, pp. 1-8.

4) 고영태, “여대생의 음주실태와 음주에 대한 의식구조”, 『덕성여대 논문집』, 14, 1995, pp. 327-338.

가 인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다양한 연령의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음주규범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규범과 음주행위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명하게 될 것이다.

## II. 기존 연구의 동향

### 1. 대학생집단의 음주

대학생들의 알코올 사용과 음주자들의 문제는 Straus and Bacon<sup>5)</sup>의 연구 이래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대학 행정가나 상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50년대 초 Straus and Bacon은 15,000명이 넘는 27개 대학의 미국 대학생의 음주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음주자는 74%, 금주자는 26%로 분류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술에 취하기 위해 마신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47%, 여학생은 단지 17%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으며, '기억상실(blackout)'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학생도 18%의 남성과 5%의 여성으로 보고되었다. 남학생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알코올 음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학생들은 폭음과 과음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며, 음주로 인한 문제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O'Hare는 대학생들의 음주에 관한 연구에서<sup>6)</sup> 적어도 대학생들의 반이상이 상당한 수준의 음주자(moderate to heavy drinkers)이며 음주의 빈도와 양이 많아질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는 증가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자동차 사고, 사고사 등 불의의 사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는 잦은 결석과 학습부진 등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7)</sup>.

대학생 집단은 대체로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같은 연령의 집단과는 다른 음주

5) Straus, A. and Bacon, S., *Drinking in Colleg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3.

6) O'Hare, T. M., "Drinking in College: Consumption Patterns, Problems, Sex Differences and Legal Drinking Ag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1, 1990, pp. 536-541.

7) Presley, C. A., and Meilman, P. W., *Alcohol and Drugs on American College Campuses: A Report to College Presidents*, Carbondale, III.: Southern Illinois Univ. Student Health Program Wellness Center, 1992.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유형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sup>8)</sup>, 대학생들의 88%는 술을 마시며, 지난 2주간 적어도 한번의 폭음을 한 경우가 43%로 나타나 대학에 다니지 않는 동년배 집단보다(34% 폭음 경험)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시절의 음주수준은 25년이 지난 이후의 음주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sup>9)</sup>. 즉 대부분의 적당한 음주를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 음주자로 남아 있었으며, 현재 금주자 중의 높은 비율은 대학시절에도 금주자였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 2. 음주규범과 알코올 소비

음주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한 사회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sup>10)</sup>. 이 분야의 연구들은 문화적 요인이 알코올의 사용과 남용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한 사회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음주에 대한 태도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지식임을 명백히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음주의 형태와 음주의 의미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사실상 알코올 남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 자체도 문화적으로 조건지워진다고 보았다<sup>11)</sup>.

알코올 연구의 민속학적 접근법(Ethnography)은 음주 유형과 음주의 결과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음주는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8) Johnston, L. D., O'Malley, P. M. and Bachman, J. G., *Smoking, Drinking, and Illicit Drug Use among American Secondary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1975-1991*: 2,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NIH Publication No.93-3481), Rockville, MD: NIDA, 1992.

9) Fillmore, K. M. and Midanik, L., "Chronicity of Drinking Problems among M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1984, pp. 228-236.

Fillmore와 Midanik은 25년 후 Starus and Bacon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을 추적하여 조사하였는데 현재 문제성 음주집단의 성원들은 대학시절 문제성 음주자였던 비율이 높았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흥미 있는 것은 대학시절의 문제성 음주자 중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음주자나 금주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학시절의 음주, 특히 폭음이나 과음이 대학이라는 특수문화의 산물인 통과의식일 가능성도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0) Room, R., "Cross-Cultural Research in Alcohol Studies: Research Traditions and Analytical Issues," in L. H. Towel, and T. C. Harford(eds.), *Cultural Influences and Drinking Patterns: A Focus on Hispanic and Japanese Populations*, U. 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esearch Monograph, No. 19. 1988, pp. 9-40.

11) Mandelbaum, D., "Alcohol and Culture," in M. Marshall(ed.), *Beliefs, behaviors, and alcoholic beverages: A cross-cultural survey*, Ann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9, pp. 14-35.

행위로 알코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에 따라 정상적인 음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에 변화가 있어 왔다. 현대사회에서의 음주는 이전의 사회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성별, 연령별 음주규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향을 보인다<sup>12)</sup>.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경향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음주는 분명히 규정된 그러나 상대적으로 드물게 행해지는 행사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음주는 좀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맥락에서 알코올이 사용되고 있다.

비교문화 연구들이 가장 주목해 왔던 주제는 음주에 대한 태도와 알코올 사용의 차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Bales는 한 사회의 알코올중독 유행률은 사회 성원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 알코올에 대한 규범적인 태도,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유무, 이 삼자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세웠다<sup>13)</sup>. Bales는 특히 알코올에 대한 태도가 알코올 중독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코올에 대한 태도를 4가지로 나누어 금주주의 (complete abstinence), 의례적인 태도 (ritual attitude), 연회적 태도 (convivial attitude), 실용주의적 태도 (utilitarian attitude)로 명명하였으며, 의례적 태도를 가진 정통 유대교도들 중에는 만취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아일랜드 사람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대교도들은 일찍이 문화 속에 통합되고 알코올의 기능이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적 의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술을 접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아일랜드 음주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부적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음주를 택하기 때문에 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음주규범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실상 정상적 음주와 문제성 음주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별, 지역별로 다르다<sup>14)</sup>. 음주규범은 알코올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주규범은 집단간 또는 집단 내의 알코올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15)</sup>. 음주규범은 동년배집단의 알코올 소비량, 문화적으로 얼마나 분명

- 
- 12) Simpura, J., *Drinking Contexts and Social Meanings of Drinking: A Study with Finnish Drinking Occasion*, Helsinki: The Finnish Foundation for Alcohol Studies, 1983.
- 13) Bales, R. F., "Cultural Deferences in Rate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 1946, pp. 480-499.
- 14) Danko, G. P., Johnson, R. C., Nagoshi, C. T., Yuen, S. H. L., Gidley, J. E., and Ahn, M., "Judgments of Normal and Problem Alcohol Use as Related to Reported Alcohol Consumpt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2(6), 1988, pp. 760-768.
- 15) Kitano, H., Chi, I., Rhee, S., Law, C. K., and Lubben, J. E., "Norms and Alcohol Consumption: Japanese in Japan, Hawaii and California,"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1), 1992, pp. 33-39.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하게 알코올 사용을 규제하는가<sup>16)</sup>, 그리고 술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sup>17)</sup>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MacAndrew and Edgerton<sup>18)</sup>은 알코올 중독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현상으로,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함량에 따라 술에 취한 행동의 결과들을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인디언의 술에 취한 많은 행위를 살펴본 결과 술에 취한 행위들은 알코올 성분에 의한 화학작용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배우고 문화적으로 규제된 행위라는 것이다. 때로는 특별히 일상에서 벗어난 행위 없이 술에 취하기도 하지만 술기운으로 둘러지는 인디언들의 행위는 종종 공격적이며 폭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일탈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elte and Barnes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알코올 소비량과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sup>19)</sup>.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음주자의 비율(45%)은 다른 인종의 청소년들보다 낮지만, 음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아시아계 청소년들은 어느 다른 인종집단의 습관성 음주자들보다 많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하지만 이들이 소비한 술의 양을 일정하게 나누어 보면, 1온스당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문제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음주의 양이 음주로 인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음주의 규범과 그 사회의 알코올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음주규범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음주와 관련된 하나의 보편적인 규범은 연령에 따른 규범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음주에 대한 관심은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집중되지만 술과 음주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훨씬 일찍 형성된다. 많은 문화에서 어린이들은 그들이 정규적으로 술을 사용하기 전부터 부모나 친지들의 음주 현장을 접하게 되지만 어린아이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의 사용은 청소년기나 그 이후로 연

---

정상굴곡 모형 (Normal curve model)에 따르면 정상적인 음주로 규정되는 음주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다.

- 16) 예를 들어 Mizruchi and Perrucci는 처방적인 규범보다(prescriptive norms) 규제적인 규범(proscriptive norms)이 병리적인 음주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izruchi, E. H. and Perrucci, R., "Norm Qualities and Differential Effects of Deviant Behavior: An Exploratory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1962, pp. 391-399.
- 17) Leigh, B. C.,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Alcohol on Self and O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1987, pp. 467-475.
- 18) MacAndrew, C. and Edgerton, R., *Drunken Comportment*, Chicago: Alcine, 1969.
- 19) Welte, J. M. and Barnes, G. M., "Alcohol Use among Adolescent Minority Group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4), 1987, pp. 329-336.

기된다. 청소년들이 처음 술을 맛보았을 때의 부정적인 반응은 어른이 마시는 것을 마심으로써 성인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극복됨을 알 수 있다.

성별 음주규범도 사회마다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여자는 남자보다 술을 적게 마신다는 점이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시아인들의 음주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관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중국과 한국계 여성들은 대다수가 비음주자이며, 비록 일본의 여성들은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 남자들은 음주자이며, 술 소비량도 많아서 한국이나 일본계 남성 중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heavier drinker)의 비율은 미국인 전체의 남성중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지적되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 행위와 음주규범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1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거쳐 배포되었다. 설문조사는 1996년 6월, 집단 면접 방식으로 대구에 소재한 한 대학의 두 캠퍼스에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의 방식은 임의표집이다. 임의표집의 한계인 대표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은 1학년부터 4학년이 함께 참가하는 일반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0명 이상의 수강 인원을 가진 강의 중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과목이 선정되었는데, 이 과목은 5개의 단과대학에서 7개의 분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양과목이다. 7개의 강좌 중 야간강의를 제외한 6강좌에서 강의평가서와 함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기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하는 대학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대구시를 벗어난 경상북도의 도시와 읍에 거주하고 있어 경북지역의 대학생들의 실태 파악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사에 참가한 학생은 모두 473명이었으나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7장은 배제하고, 총 465장을 Data Entry-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하였다.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 Chi, I., Lubben, J. E. and Kitano, H. H. L.,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 among Three Asian-American Group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1989, pp. 15-23.

## 2. 측정도구

### 1) 음주현황

음주자는 '지난 해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으로 규정한다<sup>21)</sup>. 음주 빈도는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음식과 함께 또는 술만 마신 경우 모두 포함)를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를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술에 취한 경험은 '지난 해 동안 얼마나 자주 술에 취해보았는지'를 음주자에게만 질문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술의 종류는 최근 2주 동안 소비한 알코올의 종류와 양을 기입하도록 하여 알코올 음료를 마신 경험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한 달간의 음주량의 추정은 최근 2주간 마신 맥주, 와인, 소주, 양주, 막걸리의 총량을 더한 값에 2를 곱하여 나온 수치를 분류한 것이다. 음주량의 추정은 다시 금주, 15잔 미만, 15잔 이상 30잔 미만, 30잔 이상 60잔 이하, 60잔 이상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는 알코올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변량분석에서는 이를 다시 세 범주, 즉 금주집단, 30잔 미만을 소비하는 집단, 그리고 30잔 이상을 소비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음주자를 뽑아 평균을 산출하니 한 달에 28.5잔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잔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평균보다 많이 알코올을 소비하는 집단과 평균보다 적게 알코올을 소비하는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로 음주량을 측정한 것은 음주유형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한가지 측정이 다른 측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시각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 2) 정상음주와 문제성

음주의 QUAFRE 점수: 정상음주와 문제성 음주에 관한 판단기준은 4개의 문항, 즉 자신이 정상적이라 판단하는 알코올의 소비량과 빈도, 자신이 문제성 음주라고 규정하는 평균적인 술의 양과 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음주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술의 양과 빈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성 음주라고 규정하는 술의 양과 빈도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음주의 양(quantity)과 빈도(frequency)를 결합한 QUAFRE 점수를 환산하였다<sup>22)</sup>. 음주의 양은 주중에 관계없이 한잔은 10g으

21) Hilton, M. E.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of drinking patterns in 1984," in Clark, W. B and Hilton, M. E.(eds.), *Alcohol in America*,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p. 73-88. 음주자는 보통 금주자가 아닌 사람들로 규정되는데, 금주자는 알코올 음료를 전혀 마신 적이 없거나 일년에 한번 미만의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p.74.

22) 알코올 사용의 Quafre 척도는 하와이에서 실시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인종간의 음주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방식으로 이 Quafre 척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논문에 나타나 있다. Danko, G. P., Johnson, R. C., Nagoshi, C. T., Yuen, S. H. L., Gidley, J. E. and Ahn, M., "Judgments of Normal and



로 계산하여서 모든 양의 측정은 한잔은 10g, 두 잔은 20g, 서너 잔은 35g, 대여섯 잔은 55g, 7잔 이상은 70g으로 변형시켰다. 물론 맥주와 소주, 양주의 알코올 농도는 다르지만 보통 마시는 잔의 크기가 다르고, 약한 술은 큰 잔에, 독한 술은 작은 잔에 마시게 된다. 따라서 한잔의 양주와 한잔의 맥주를 마시는 경우 결국 음주자가 흡수하는 알코올의 양은 비슷하게 여겨져 알코올 연구에는 이러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미만은 1, 일주일에 한두 번은 1.5, 일주일에 두세 번은 3.5, 매일 또는 거의 매일은 6.0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환산한 QUAFRE 점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응답의 폭이 너무 넓어서 1.00 (한잔\*일주일에 한잔미만=10g)부터 2.62 (7잔이상\*매일 또는 거의매일=420g)까지의 점수로 환산되는 LOG10으로 전환하였다<sup>23)</sup>. 로그 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1.62에 불과하지만 이를 일반 수치로 환산하면 410g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로그로 환산한 값은 비록 적은 차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커다란 차이의 알코올 소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음주에 대한 자신의 규범이나 문화적 규범은 금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응답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3) 성별, 연령별 음주 규범

음주규범의 또다른 분석은 다양한 연령의 남녀에게 가장 적합한 음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음주의 허용도를 조사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음주규범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16세, 21세, 40세, 60세 남녀의 음주에 대한 태도를 기입하도록 하고 1부터 4까지의 수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선택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 '적은 양의 음주' '취하진 않고 기분 좋은 정도' 그리고 '때때로는 취해도 좋다'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 IV. 연구결과

<표 1>은 응답자의 성격을 보여준다. 여학생이 54.5%, 남학생이 45.5%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종교는 무종교가 절반에 이르며, 기독교, 불교, 카톨릭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학생 중에서 지난해에는 '종교행위

---

Problem Alcohol Use as Related to Reported Alcohol Consumptio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2(6), 1988, pp. 760-768.

- 23) 예를 들어 문체성 음주에 대한 자신의 판단기준을 보면 응답자들의 최대값은 420g, 최소값은 10g이며 평균편차가 130.20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나 LOG10으로 전환한 QUAFRE 점수는 최대값은 2.62, 최소값은 1.00이며 평균편차가 .36으로 나타나 좀더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듯하다.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30% 미만이며 일을 하는 경우도 일주일의 10시간 정도의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만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응답자의 성격**

	%	N
성별		
남	45.4	211
녀	54.6	254
종교		
불교	15.6	72
기독교	25.7	119
카톨릭	10.4	48
기타	1.7	8
무종교	46.7	216
종교행위 참가여부		
일주일에 한번이상	33.6	83
한 달에 1-3회	13.0	32
일년에 1-11회	25.5	63
지난해에는참여안함	27.9	69
학교외의 직업		
예	27.8	129
아니오	72.2	335

<표 2>는 알코올 소비를 측정하는 5가지 지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음주인구를 보면 남녀의 차이 없이 90%의 응답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비교해 볼 때<sup>24)</sup> 남녀 모두 일반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만, 특히 여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연령적 특성과 대학문화의 특수성으로 이해하여야 하겠지만 술소비량의 증가와, 청소년, 여성인구의 음주인구로의 유입이라는 현대사회의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표 2>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현황**

단위, % (N)

24) 남자는 84.7%, 여자는 33%가 음주인구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p. 259.

	남학생		여학생		전체	
	%	N	%	N	%	N
금주자	8.5	18	11.0	28	9.9	46
음주빈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48.8	103	30.3	77	38.7	180
한달에 한번이상	34.1	72	38.2	97	36.3	169
1년에 한번이상	8.5	18	20.5	52	15.1	70
최근 2주로 유추한 한달간의 음주량						
금주	25.6	54	32.3	82	29.2	136
15잔미만	24.6	52	33.1	84	29.2	136
15잔이상30잔미만	13.3	28	20.1	51	17.0	79
30잔이상 60잔미만	15.6	33	10.2	26	12.7	59
60잔 이상	20.9	44	4.3	11	11.8	55
음주자중 술에 취한 경험의 빈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18.0	38	9.8	25	13.5	63
한달에 한번이상	34.1	72	28.3	72	31.0	144
1년에 한번이상	34.6	73	38.6	98	36.8	171
술의 종류						
맥주	67.3	142	58.7	149	62.6	291
포도주	2.4	5	3.1	8	2.8	13
소주	49.8	105	42.1	107	45.6	212
막걸리	13.7	29	11.4	29	12.3	58
양주	8.1	17	4.3	11	6.6	28

그러나 <표 2>는 비록 남녀간의 음주자의 비율은 차이가 없지만 음주자중 알코올 소비량은 남학생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알코올 분야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음주량의 측정인 한달간 마신 알코올의 총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음주자들은 적은 양의 알코올을 소비하여 24.6%의 남학생과 33.1%의 여학생이 15잔 미만의 알코올을 소비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 달에 60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인구를 보면 21%의 남학생과 4.3%의 여학생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음주의 총량을 측정하는 분석은 매일 적은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과 가끔씩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사실상 Knupfer가 지적했듯이 술로 인한 폐해는 취한 경험, 대개는 한자리에서 다섯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빈도와 관련이 깊다<sup>25)</sup>.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깊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좀더 세분화된 음주측정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몇 잔의 술을 마셨는가는 개개인의 체중이나 메타볼리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주관적인 술에 취한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이상 취한 경험은 남학생이 18%, 여학생은 9.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음주 유형이 자주 마시기보다는 마시는 경우에 폭음을 하는 것을 보여주며, 술에 취한 경험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소비한 술의 종류를 보면 남녀 모두에게 가장 널리 사용된 주류는 맥주이며, 소주, 막걸리의 순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인의 경우는 비록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 의해 더 많이 소비된 유일한 알코올 음료임을 알 수 있다.

<표 3>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알코올 소비량

	x <sup>2</sup>	한달간 안마십		30잔 미만		30잔이상	
		%	N	%	N	%	N
성별	30.15**						
남학생		25.6	54	37.9	80	36.5	77
여학생		32.3	82	53.1	135	14.6	37
종교	74.91**						
불교		16.7	12	45.8	33	37.5	27
기독교		58.0	69	29.4	35	12.6	15
카톨릭		14.6	7	68.8	33	16.7	8
기타		25.0	2	37.5	3	37.5	3
무종교		20.8	45	50.9	110	28.2	61
종교행위 참가여부	24.61**						
일주일에 한번이상		55.4	46	36.1	30	18.4	7
한달에 1-3회		25.0	8	46.9	15	28.1	9
일년에 1-11회		30.2	19	39.7	25	30.2	19
지난해에는참여안함		24.6	17	49.3	34	26.1	18
학교 외의 직업	.295						
예		28.7	37	48.1	62	23.3	30
아니오		29.6	99	45.4	152	25.1	84

\* p < .05      \*\* p < .01

<표 3>은 인구학적 특성과 음주량의 관계를 제시한다. 학교 외의 직업을 제외한 모든 요인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가 대학생

- 25) Knupfer, G., "The Risks of Drunkenness or Ebrietas Resurrecta: A Comparison of Frequent Intoxication Indices and of Population Subgroups as to Problem Risk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79, 1984, pp. 185-196.

들의 음주량과는 무관하게 나타난 것은 학교 밖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은 대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를 그 일에 할애하고 있어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생활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달에 30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오래 전부터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비음주인구는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종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상 종교 행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을 적게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 음주량별 QUAFRE 점수로 본 음주규범

영역	상관변인	항목	N	평균(S.D)	F or T값
자신의 규범 정상음주	성별	남학생	209	1.360 (.285)	1.24*
		여학생	253	1.329 (.251)	
	음주량	금주	135	1.244 (.251)	32.03**
30잔미만	215	1.326 (.246)			
30잔이상	112	1.497 (.260)			
자신의 규범 문제성음주	성별	남학생	207	2.242 (.403)	-2.51*
		여학생	251	2.325 (.309)	
	음주량	금주	134	2.217 (.372)	4.69**
30잔미만	212	2.297 (.345)			
30잔이상	112	2.354 (.348)			
문화적 규범 정상음주	성별	남학생	207	1.425 (.308)	.23
		여학생	252	1.419 (.304)	
	음주량	금주	134	1.470 (.361)	2.697
30잔미만	213	1.389 (.382)			
30잔이상	112	1.468 (.268)			
문화적 규범 문제성음주	성별	남학생	208	2.268 (.400)	-3.54**
		여학생	252	2.381 (.276)	
	음주량	금주	134	2.301 (.376)	1.05
30잔미만	213	2.354 (.308)			
30잔이상	112	2.320 (.359)			

\* p < .05      \*\* p<.01

<표 4>는 성별, 음주량별로 정상음주와 문제성음주에 대한 응답자의 믿음을 환산한 QUAFRE 점수의 로그 값을 표시한 것이다. <표 4>를 보면 성별이나 음주량에 따른 범주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가 문화적 규범이 자신의 규범보다 좀더 알코올의 사용에 허용적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상음주의 판단은 적은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에 따른 범주에 관계없이 모든 응답자가 문화적 규범이 자신의 규범보다 좀더 알코올의 사용에 허용적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상음주의 판단은 적은 양의 음주인 반면에 문제성음주의 판단은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임을 제시하고 있다.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음주규범은 자신이 판단한 정상음주, 문제성음주의 기준에서 성별, 음주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문화적 규범인 문제성 음주에서 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정상음주라고 판단한 남학생의 기준은 여학생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알코올의 소비가 많을수록 자신이 정상음주라고 규정하는 음주량이 높은 수치인 경향을 보여 음주수준은 정상 음주와 문제성 음주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화적 규범으로 본 정상음주와 문제성음주의 판단기준에서는 음주량에 따른 세집단 중 어느 두 집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모든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적당한 음주량에 관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여학생들이 문제성 음주에 관한 음주규범이 남학생들의 음주규범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더 많은 알코올을 소비하고 더 많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남학생들의 판단은 좀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현실적인 기준이고 여학생들의 판단은 가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는 성별 연령별로 적합한 음주의 허용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21세의 여성과 40세 여성의 음주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연령층 모두 남학생들은 '적은 양의 음주'를 최빈치로 선택한 반면 여학생들은 '취하진 않고 기분이 좋은 정도'를 최빈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응답자가 21세나 40세 남성의 음주를 같은 연령의 여성의 음주보다는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남녀의 구별 없이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적절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며, 60세의 연령층은 남녀의 구분 없이 '적은 양의 음주'만이 모범적인 음주규범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다.

<표 5> 다양한 연령의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대한 태도

단위: %

	남자(N=211)	여자(N=254)	전체(N=465)
16세 소년	$X^2 = 3.29$		
전혀마시지않는다	77.3	72.0	74.4
적은양의 음주	19.0	20.5	19.8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2.8	5.9	4.5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9	1.6	1.3
21세 남성	$X^2 = 3.36$		
전혀마시지않는다	2.4	1.2	1.7
적은양의 음주	12.8	8.7	10.6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38.9	39.1	39.0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46.0	51.0	48.7
40세 남성	$X^2 = 7.19$		
전혀마시지않는다	1.4	.8	1.1
적은양의 음주	14.2	20.9	17.8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59.7	48.4	53.5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24.6	29.9	27.5
60세 남성	$X^2 = 1.83$		
전혀마시지않는다	5.7	5.5	5.6
적은양의 음주	40.3	46.1	43.4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40.3	37.4	38.7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13.7	11.0	12.3
16세 소녀	$X^2 = 1.08$		
전혀마시지않는다	78.2	75.6	76.8
적은양의 음주	16.6	19.3	18.1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3.3	3.9	3.7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1.9	1.2	1.5
21세 여성	$X^2 = 40.12^{**}$		
전혀마시지않는다	7.6	3.1	5.2
적은양의 음주	49.8	25.2	36.3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32.7	54.3	44.5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10.0	17.3	14.0
40세 여성	$X^2 = 9.87^*$		
전혀마시지않는다	7.1	3.1	4.9
적은양의 음주	42.2	33.9	37.6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43.1	50.4	47.1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7.6	12.6	10.3
60세 여성	$X^2 = 2.21$		
전혀마시지않는다	21.3	16.3	18.6
적은양의 음주	46.4	51.8	49.4
취하진않고기분이 좋은 정도	25.6	25.5	25.5
때때로는취해도 좋다	6.6	6.4	6.5

\* p < .05      \*\* p < .01

<표 6>은 다양한 연령의 남녀의 음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응답자 모두 남녀 청소년에 대한 음주는 금지하는 것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 모든 범주의 남자 성인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가 여자 성인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21세 여성의 음주나 40세 여성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가 60세 남성의 음주에 대한 허용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의 경우는 연령보다는 성에 따른 규범이 우선하지만 여성에게는 성보다는 연령에 따른 규범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음주의 허용도는 21세 남성이며 40세 남성이 그 뒤를 따른다. 21세의 남성의 경우는 ‘때때로 취해도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연령층에 속한 남성의 음주에 상당히 관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모든 연령층을 조사했으면 결과는 21세 남성보다 40세 남성의 음주에 좀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 다른 사람들의 음주 허용도

단위: 평균값(순위)

	남학생	여학생
16세 소년	1.27 (8)	1.37 (7)
21세 남성	3.28 (1)	3.40 (1)
40세 남성	3.08 (2)	3.40 (2)
60세 남성	4.62 (3)	2.54 (5)
16세 소녀	1.28 (7)	1.31 (8)
21세 여성	2.45 (5)	2.85 (3)
40세 여성	2.51 (4)	2.72 (4)
60세 여성	2.18 (6)	2.22 (6)

## V. 맺음말: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염려가 고조되는 반면에 대학생 집단의 음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시도된 탐색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조사되지 않은 더 넓은 인구층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표본추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비록 임의 표집의 한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대표성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학생들의 음주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요



인으로 학생들의 거주지나, 학년, 복학의 여부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에 포함시켜 교차분석을 하였으면 실제 학생지도에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을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알코올을 소비한다는 오랜 믿음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록 음주인구는 남녀의 차이 없이 90%정도로 나타났으나 술에 취한 경험의 빈도나 한 달간의 음주량으로 보면 남학생들의 알코올 소비가 여학생들의 소비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매우 높게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은 물론 술소비량의 증가와, 여성인구의 음주인구로의 유입이라는 현대사회의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둘째는 음주규범에 관한 정보가 보고된 음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음주규범은 성별, 음주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다. 알코올의 소비가 많을수록 자신이 정상음주와 문제성 음주를 규정하는 음주량의 기준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음주수준은 음주의 규범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과 노년층의 음주에 대한 규범은 모든 응답자들이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알코올 소비가 금지되고 있으며 노인층의 음주 규범으로는 '적은 양의 음주'가 가장 적당한 범주로 지적되었다. 남녀 성인의 음주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적은 양의 음주'나 '취하진 않을 정도의 적당한 음주'를 모범적인 규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녀 모두 남성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음주에 대한 태도보다 허용적이지만 여학생들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규범이 우선하며 남학생들의 경우는 성역할에 따른 규범이 우선한다는 결과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결과는 음주문제에 대처하는 임상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알코올 소비에 좀더 허용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문화적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해결의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음주와 문제성음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정확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며 이를 통한 알코올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합의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문제성 음주와 정상 음주의 기준이 요구되었지만, 이 논문의 결과를 좀더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무엇을 문제성 음주라고 규정하는지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는 빈번한 음주를 폭음이나 과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 **대학생들의 음주행위와 음주규범**

---

있는데, 실제로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음주의 총량이 같아도 자주 마시는 경우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에 계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